

대림 제3주일

기도서 P. 216 A해

- 1독 (이 사 35,1-6a. 10절)
- 2독 (야 고 5, 7 - 10절)
- 독음 (마 태 11, 2 - 11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시서노송동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광야의 소리

김 용 태 신부

세례자 요한을 광야의 소리라 말한다.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어지고, 주의 길을 닦으라 외친 세례자 요한, 그의 소리는 광야에서 나는 것이기에 광야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 신·구약성경의 무대인 팔레스티나와 그 주변의 지역은 대부분 바싹 마른 사막으로 되어있다. 풀 한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방황한 곳도, 예수님이 40일간 엄제하신 곳도 또한 광야에서였다.

이렇게 광야 가까이 사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광야라 하면 즉시 연상할 수 있는 풍경이 있다. 구세주의 길을 닦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라 외치는 소리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같이 사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같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외롭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에 가다가도 사람하나 만나볼 수 없다. 자기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나 잠깐 의지하고 쉬어갈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없다. 이렇게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인간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게 마련이다. 아무리 하루의 일과가 고달프고 주위환경이 소란하여도 위세상은 아무것도 믿고 의지한 것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사막을 방황하는 사람과 같고, 광야에서 나는 구세주의 길을 닦으라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가 그 마음의 사막안에 울릴 것이다. 요즈음 누가 온다고 보이는 면에 케인 트릴하고, 헛간을 고치는 등 '걸꾸미기에' 막대한 자본을 바르는 것과 길을 닦으라는 광야에서의 소리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행복하여라 외로움에 우는 사람들, 위로를 받으라..."

또 사막을 방황하는 자의 가장 큰 괴로움은 목마름이다. 한발이 계속되어 애가 타던 일을 얼마전에 우리는 겪었다. 갈증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영혼도 이렇게 하느님을 목말라 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를 목말라 하는 이는 행복하다"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헤메는 사람같이 하느님께만 의탁하며 하느님만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만이 "하느님의 길을 닦으라" "걸꾸미를 버리라"는 소리가 들린다.

마음으로 결순한 이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 결순의 골짜기를 메울 것이고, 자만함이는 무릎을 꿇어 모든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해야 하겠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내치시는 하느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모든이에게 주어진 구원이지만 주의 길을 닦으라는 말씀을 모든이들이 듣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창인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새 마음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요한 3,1-21)

우리는 성세성사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났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새로 나야 한다. 특히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하여 더욱 새로 나야 한다 다시 말해 항상 새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대림절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읍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읍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로마서 13, 11-14)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빛의 갑옷을 갖추어 입을 준비를 한다. 그런데 밖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캐롤, 선물들의 걸꾸미는 일들이 우리의 혼을 빼려 달려 들고 있다. 지금은 정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다. 그러니 새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표에서 항상 배워야 한다. 우리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들쭉하는 새마음 지도자 환영 준비를 보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서 갈고 닦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도 애썼는가? 이러한 노고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서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뜨이는 곳만 치장하는 새마음을 꾸미지는 말자. 너무나 낭비(?)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듣지는 말자. 새마음에 앞서 새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자. 그런 눈으로 우리를 돌아 보자.

숲 정 이 산책



축! 루-르드
동원축성



오시는 분

정 승 현 신부

대림절(待臨節).

순간마다, 해마다, 날마다, 밤마다 오시는 그분을 합당히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되어서 그때마다 당황하고 혹시나 그분이 화를 내시지 않을까 불안해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청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왕은 왔습니다. 그런데 등불은 어디 있고 꽃다발은 어디 있는가? 그를 모실 왕좌는 어디 있는가? 오 부끄러움이여! 빛어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여! 밤은, 장식품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말했읍니다. 「이렇게 떠돌어야 소용없소! 빈손으로 그를 맞아 당신의 멘방으로 모셔요!」(타골의 '키란칼리'에서)

대림절.

빈손으로라도, 맨 방에라도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오시는 그분을 그냥 가시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오시는 그분을 꼭 만나뵈어야 하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즉시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만 더 견디어내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비록 준비는 안되었을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만나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슬픈 눈이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그분은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상관치 않으시고 자비로이 와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이번에는 꼭 오시는 주님을 만나뵈게 해주소서.
(필리핀에서)

당신이 오시는 날

박 요 한

세상의 빛이신 님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이 오시는 날

어두움이 사라지리라

진리의 근원이신 님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이 오시는 날

이 지상은 진리의 배가 부르리라

천주의 어린양이신 님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당신의 영광 크리라

착한 목장이신 님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이 오시는 날

이 세상엔 평화가 오리라

구세주이신 님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구원의 은총 충만하리라.

● 78년도 교구연감(敎區年鑑) 제작 안내 ●

광 고 모 집

교구 평협(敎區平協)은 교구내의 모든 본당과 기관 및 단체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구연감을 제작키로 한 바 총재 주교님으로부터도 재가를 얻어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은 교구내 모든 신자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친목의 장(場)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형제들도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광고란> 이용을 권합니다

적 음

1. 수록내용... 각 본당의 연혁 및 사도회 등 단체소개, 교구 기관 및 교구 단위 제 단체 소개
2. 광고절수... 12월 18일까지 교구청 내 평협 사무국(金정이 편집실, 전주 전화 3-5098)로 하세요
3. 교구 연감은 78년 1월 1일에 있을 신년 교례회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 직원모집 공고 □

1. 센터 상주자 35세 이상 55세 미만 남자
2. 식당 카운터 30세 미만, 중졸이상의 여성으로 센터에서 상주 가능자(상업에 경험있는 분 환영)
3. 가톨릭 시보 배달 직원 출퇴근 가능 함(학생 환영)

◎제출서류...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본당신부추천서 각1통

◎모집기간...12월 20일 17시까지, 장소...전주 가톨릭 센터



반주법(명곡, 유행가), 성악(독창, 합창), 화성학
음대성악과 진학자 발생지도
가수지망생,



전자울젠, 짜즈피아노

개 인 지 도(2-6111)

이일규 (알로이시오) 이사희장

세광음악학원(전주극장동편입구2층)

□ 성서교실 27 □



요한 묵시록

권 이 록

묵시문학(默示文學): 묵시 문학이란 주로 역사 종말의 진행과정, 시기계산, 후세 등을 다루는 문학 유형으로서 가장 오래된 본격적인 것은 다니엘서이다. 그후의 것은 우 후죽순처럼 번성하였다. 묵시문학에서는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밀어(密語), 비유, 숫자 상징, 이상한 용모와 꿈 이야기, 저승에서 오는 표현등을 사용하였으며 불행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장차 행복한 시절이 올 것을 믿고 현재의 수난을 극복하고 용기를 잃지 말도록 고무한다. 이 묵시문학은 신약시대를 거쳐 중세기까지 계속 되는데 그 대표적 작품이 단테의 神曲이다.

묵시록의 저작상: 이것은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무런 체제도 사상도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일정한 체제와 편찬사상이 드러난다. 그 체제를 이해하는 데는 상징숫자-3, 7, 12(완성·중만), 3.5, 6(홍수)-를 잘 이해해야 된다. 교회의 원수들을 비유로 지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해독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666=네로황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가짜 예언자, 요술가, 일곱 언덕위의 바빌론=로마). 이렇듯 상징적인 숫자와 비유를 통해 저자는 당시 교회를 칭찬, 힐책하며 박해받던 교회를 굳세게 한다. 단지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 쓰여진 미래사를 꾸민책이 아니라 회망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집필 장소·연대·저자: 저자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요한이라고만 하여 사도요한과 일치하는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집필장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일곱도시를 잘 아는 것으로 보아 소아시아 지방일 것이고, 저술연대는 대략 1세기말로 보여진다.

묵시록의 주석원칙: 오늘날 그 주석학에서는 세말사적(世末史的), 교회사내지 세계사적, 시대사적, 전승사적 방법등 네가지 방법을 선택종합한다. 즉 묵시록은 전통적인 표상을 빌어 「지금 처해있는 상태와 닮은 상태를(1, 1-19)」 밝히려고 했다는 것이다. 즉 악의 세계와 하느님 나라와의 설 새 없는 대결을 서술한 책이다.

내용과 신학: 저자는 현재 있는 일과 닮은 일을 서술하라는 명령을 받는다(1, 19). 이 명령에 따라 당시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한 칭찬과 힐책(2, 1-3, 22)과 현세의 종말, 내세의 도래에 관해 쓰고 있다(4, 1-22, 5). 세말의 전투는 용, 짐승, 짐승의 추종자와 메시아, 교회간의 싸움이며(12, 1-14, 5) 바빌론, 즉 로마와 사랑을 거부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새 천지에 전철될 하느님 나라와 천상 예루살렘의 시현(示現)으로 끝을 맺는다.

묵시록에 서술된 교회는 지독한 수난과 박해를 받으나 그것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며 그 위에는 하느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침묵을 지키는 것 같으나 마지막날 모든 비밀은 드러나고 만사는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묵시록이 가져다주는 위로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세말의 신비는 시공을 초월한 것이기에 인간의 자연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示現)을 통해서 어떠한 상징물과 비슷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하기가 가장 힘든 이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또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선량한 신도를 유혹하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특히 조심해야 하겠다.

요심이 (228) 김병오



□ 주산반 · 부기반 · 경리실무반 □

삼일주산경리학원

수시접수(국교, 중고등, 일반)

정진경 (분도)

☎ ② 1462

병무청 ↔ 구법원 중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앞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현대 칼라 특약점 □

태양사

김 스테파노 (중범)

- 특수 촬영 기술 무료로
 - 고급 카메라 대여, 수리전문
 - 회갑·결혼 아의 칼라사진출사
 - 각종 칼라 필름 판매
- 정읍 소방서 앞 ☎ 5404번

□ 신사·숙녀복, 아동복 다량구비 □

천사양품

박 현 주(베레사)

☎ ② 7055번

남부 시장 내 중간지점

남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경식 ☎ ②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킨

문화양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팔로 송의과 맞은편 2-3170, 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구 평협 정기총회**, (18일(일) 오전 10-오후 4시, 가톨릭 센터)
 - ① 각 분당 사도회장, 교구단위 액션 단체의장, 지구 각 분과 위원장의 빠짐없는 참석바람
 - ② 총회 중 미사 있음
2. **국군 장병에게 따뜻한 형제애를 보입니다.** 군종 사제들을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군종사제-고경훈(육군), 성민호(공군), 김병운(육군), 양재철(공군), 엄기봉(육군)-들의 사목 활동을 물질적으로도 도웁시다.
3. **술정이 대금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어 어려움이 큼니다.**

언말을 알두고 출판사가 격고있는 타격이 너무나 큼니다. 분당운영이 어려워 술정이 대금 청산이 곤란하다면 술정이라도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제11차 남성 꾸르실료**(78년 1월 2-5일, 가톨릭 센터, 회비 8,000원)

회망자는 분당 신부님 추천받아 성직여고 내 꾸르실료 사무국으로 접수할 것.
5. **연감 자료 안번 분당 및 단체, 수도회는 11월 12일 까지는 꼭 내주세요**

※ 주류, 둔물동, 함열, 화산, 고산, 여산, 창인동, 덕진, 진동, 남원, 무주, 순창, 진안분당

□ 제4차 마인드컨트를 공개 강좌 (12월 15일(목) 오후 7시,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동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동, 진북동, 21일-완산동, 효자동
(※시간 오전 10-12시, 오후 2-5시)

3. **교무금 완납합시다**
- **지난주 불현금**: 40,712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박종
사도 회장 박종용

1. **오늘의 모임**: 성모회 월례회(공식 미사후), 재속 청년회 수련식(오후 4시), 사도회 상임 위원회 (오후 7시) 노송 신우회 월례회(오후 8시)
 2. **판공일정**(오후 2시반-5시반, 7시반-8시반)

우아동-12월(우아동에서), 13일(분당), 인후동-14·15일, 남노송-16일, 중노 2가-19·20일, 중노 1가-21·22일, 한자 방문겸 판공-14·15일 오전, 초·중·고생-17일
 3. **새 영세자 면담**-18일 오후 3시, **피정**-23일 오후 2-4시, **영세식**-24일 오후 2시반
 4. **성탄 성가연습**: 어머니·학생·청년, 12일, 저녁 7시반
- **지난주 불현금**: 44,32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선교위원회 모임**: 미사후
 2. **청년회 성가 연습**: 주일 저녁 7시반
 3. **18일부터 미사시간 변경**: 아침미사→저녁 7시반, 어머니 미사-〈금〉 10시반, 어린이-주일 9시, 주일-공식 미사 (10시), 저녁 미사 (7시반)
 4. **판공일정**: 12·13일-전당리 공소, 15·16일-미산공소, 17·18일-직장인, 학생
- **지난주 불현금**: 44,125원

(복자)

전화 ⑤25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확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 반회장, 신심단체 회원, 교문, 감사
2. **판공일정**: 17·18일 오후 2-5시(직장인, 학생) 19일-다가동, 중앙동, 화산동, 20일-태평동, 고사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L, M간부회**: 선교주일 공식 미사후
2. **반상회**: 13일-5·9반, 14일-6·10반, 15일-7·11반, 16일-8·12반, 17일-13·기타반
3. **일선국군 장병 위한 위문품**, 위문문 18일(일)까지
4. **판공일정**: 20일(1~4반), 21일(5~8반), 22일(8~12반), 23일(13반, 기타반)

(술정)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임원 모임**: 공식 미사후
 2. **각 분과 위원장님 78년도 사업계획서** 내주세요
 3. **불현금 완납바랍니다**
 4. **젊은이 모임에** 참석바랍니다
 5. **판공 심사는** 지정된 날짜에 바주세요
- **지난주 불현금**: 76,65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김유석

1. **사도회**: 저녁 미사후 (8시), 사무실
 2. **자모회, 장우회**: 10시 미사후
 3. **성가정회 피정**: 15·16일, 광주 피정의집
 4. **가정심방**: 흥남동, 교동
 5. **영세식**: 17(토) 저녁 예정
 6. **판공심사**: 17-23일 예정
 7. **신용조합 월례회**: 14일(수) 저녁 7시반
- ※ **새성당 완납자 명단**(남노·중앙·경원·다가동)
박주규, 김희곤, 김중열, 양희석, 오인순, 은필중, 김우만, 김용동, 국경희, 전연주, 김화심, 김우례, 한정숙, 박마리아, 황시연, 주양근, 서종남, 김정희, 김계순, 홍금순, 오봉순, 유규채, 유진희, 최애기, 김보소, 강안자, 이상순, 이준철, 김봉호, 김병구, 이영철, 강민주, 김춘자, 유영문, 김남시, 김은숙, 이행욱, 라정순, 성복순, 양일순, 홍순녀, 강판금, 최순남, 고수창
- **지난주 불현금**: 116,195원



대성상사

<제일페인트 전주대리점>

□ 페인트·타이루·건재·합판 도산매, 공사청부

교우들의 깨끗한 집단장을 도와드릴 **송호현** (아오스당)

이남용 (야고버)

이정수 (암브로시오)

★ 전주시 진북동 326-5 (전화 3-6291)

